

4·3 서사의 행위자, ‘음식’: 영화 <지슬>을 중심으로*

이정원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위원

목차

1. 들어가며
2. 4·3 서사의 인간-음식 연결망 고찰
 - 1) 인간-비인간의 연결로 번역하는 4·3 서사
 - 2) 4·3 영화의 대표 행위자, 음식
 - 3) <지슬>이라는 블랙박스, 재번역을 요청하는 음식의 행위
3. 음식의 행위로 재서술하는 <지슬>의 서사
 - 1) 감자의 서사
 - 2) 고추의 서사
4. 맺으며

주 ■ ■ ■ ■ ■

* 이 논문은 2025년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4·3융합전공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연구 완성도를 위해 세심한 조언과 의견을 전해주시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문요약

이 글은 평화와 인권, 세계화의 담론에서 탈피해 4·3의 서사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으로 재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초적 서사를 고찰할 때 4·3은 인간과 비인간이 연결되고 하이브리드하며 만들어진 혼종의 서사가 증폭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은 비인간과 경계를 그은 상태에서 인간만의 서사를 서술해왔다. 이 때문에 혼종의 서사를 설명, 이해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4·3의 서사를 구성한 대표 비인간이 ‘음식’이다. 음식은 4·3 의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영화 <지슬>은 제목에서부터 음식을 배치하며, 음식이 서사를 이끄는 중심 행위자임을 선언한다. 음식이 인간과 결합해 특정 행위를 할 때 서사는 예정된 비극적 결말을 향해 전환되고 진전한다. <지슬>의 대표 행위자는 감자와 고추다. 감자는 피신과 강탈, 음복(飮福)의 행위를 통해 영화 전체를 위령제로 변모시킨다. 고추는 무기로서 행위하며 4·3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내전의 서사로 통찰하도록 한다. 4·3영화는 이미지 번역을 통해 음식과 사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대변인이 되고 있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음식,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제주, 4·3, 지슬, 감자, 고추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4·3의 서사를 브뤼노 라투르(Latour, B.)로 대표되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¹⁾으로 재서술하며 관습화된 4·3 담론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문이 제기하는 질문은 두 개다. “4·3은 인간만의 서사인가?”, “4·3 서사를 본질·초월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가?”이다.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4·3영화 <지슬>(오명, 2013)의 서사를 분석한다. <지슬>은 제목에서부터 비인간인 ‘음식’을 중심 행위자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인간과 음식을 연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전개하며 비인간 행위자의 존재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서사 구성, 전개 방식이 규명되지 못했다. 음식을 배제한 가운데 인간 행위 및 본질·초월적 가치 중심으로 <지슬>을 탐색했다.

이는 <지슬>의 성취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적 한계가 된다. 동시에 <지슬>을 더욱 신화화하고 새로운 로컬 4·3영화 출현을 위촉시키는 역설적 요인이 된다. 관행적인 인식 틀을 깨고 인간과 음식을 동등한 행위자로 존중하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제주 4·3 서사는 관습화된 담론의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 4·3은 반공 국가 체제를 지배한 폭동론과 이에 대항한 항쟁론의 시기를 건너왔다. 이어 합의 담론인 양민 학살론에 이어 진전된 형태의 ‘평화·인권·화해·상생론’이 등장했다. 이 담론은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4·3 사건 진상보고서』가 발간된 2000년 이후에 전면화됐고 현재는 국가가 인정

영화
연구
105

주

- 1) ANT는 프랑스 철학자 질베르 시몽돈(Gilbert Simondon)이 제기해 라투르가 과학과 철학에 적용했다. 시몽돈은 “인간 정체성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에는 가족, 친구, 동료, 독자, 학생 같은 인간만이 아니라 책, 휴대폰, 메모장, 커피 등 다양한 비인간의 연결, 네트워크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다. 문관규, 「음식 공유 장면에 재현된 동아시아 영화의 에피스테메: 홍상수와 지아장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5,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3, 169~170쪽.

하는 공식 담론으로 굳건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²⁾ 담론은 권력 재생산의 속성을 내재한다. 4·3 담론이 형성한 정치적 질서는 국가 간 경계를 확대하기 위한 욕망을 드러내는 데, 이를 구현하는 가치가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다. 두 축, 평화·인권·화해·상생론과 4·3 전국화 및 세계화는 4·3 서사를 평가, 재해석하고 재서술하는 만능적 관점, 가치가 된다.

예술 영역의 성취를 평가할 때도 관습의 담론은 어김없이 힘을 발휘한다. 특히 4·3의 정치적 질서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확장의 성과를 달성할 때, 담론 가동 범위와 속도는 더욱 넓고 빨라진다. 최근 사례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다. 2024년 12월 수상 소식이 제주 사회에 전해졌을 때 작가 및 작가의 4·3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향한 대대적인 상찬이 쏟아졌다. 상찬의 관점 역시 두 축의 담론에 기반한 것이었다.³⁾ 하지만 한강 작가는 평화·인권 등의 담론을 세계화하기 위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사물과의 대칭적 연결에서 얻은 정동(Affect)을 주체하지 못해 소설에 녹였다고 보여진다. 수상 연설문에서 작가는 볼펜 깎지, 몽당연필, 일기장, 휴대폰, 공책 등과 연결되어 대화를 나누고 사유했던 기억을 재서술했다.⁴⁾ ANT의 관점으로 말하면, 한강의 연설문과 소설들은 인간과 비인간이 네트워크하며 만든 사회적 연결망으로 구성됐다. 이 세계는 대

주

- 2) 고성만, 「제주 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4·3과 역사』, 5, 2005, 346쪽.
- 3)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문화관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작가회의와 광주전남작가회의가 주관한 ‘사월에서 오월로’ 문학 심포지엄에서 고명철 문학평론가는 “4·3 안팎의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전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문제로 심화·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문학이 일궈낸 값진 성취… 낯익은 구미중심주의에 기반한 근대의 동일자·단수 개념으로서 리얼리즘을 이해하는 것보다 복수의 근대, 즉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제주 리얼리즘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우, <“소년은 작별하지 않는다”…세계문학 중심 파고든 ‘제주 리얼리즘’>, 《제주의소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6954>, 2025/6/7.)
- 4) 연설문에서 한강 작가는 『작별하지 않는다』 집필 과정에서 ‘연결의 정동’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제주도에 월세방을 얻어 서울을 오가는 생활을 했다…하살 생존자들의 증언들을 읽고 자료를 공부하며, 언어로 치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잔혹한 세부들을 응시하며 최대한 절제하여 써낸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것은, 검은 나무들과 밀려오는 바다의 꿈을 끝 아침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났을 때였다…소설을 쓰는 동안 사용했던 몇 권의 공책들에 나는 이런 메모를 했다. 바람과 해류, 전 세계를 잇는 물과 바람의 순환,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부디(Han Kang, <Nobel Prize lecture in Korean-빛과 살>, 《THE NOBEL FOUNDATION 2024》, <https://www.nobelprize.org/prizes/literature/2024/han/225027-nobel-lecture-korean>, 2025/6/1,

칭적 행위자⁵⁾인 인간과 비인간이 연결되고 하이브리드(hybrid)하며 만들어진 혼종의 서사가 증폭한 결과물인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비인간과 경계를 그은 상태에서 인간만의 서사를 갖고 비대칭적으로 세상을 구성하기 때문에 혼종의 서사를 설명, 이해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현상을 초월하는 본질의 가치, 형이상학적 원리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현상을 환원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4·3의 서사를 재서술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실체를 알 수 없는 평화·화해 등 형이상학적 담론에 몰두하는 사이, 가장 가까이 존재했고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결합하고 행위하며 서사를 구성·확장한 비인간의 존재를 외면하는 오류를 범해왔다. 이 글에서 재서술을 시도하는 영화 <지슬> 속 음식이 인간이 외면한 대표 비인간이다.

음식은 4·3 의례 서사를 구성, 서술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음식의 행위 방향, 반경에 따라 서사의 질서, 의미가 달라진다. 43 영화의 계보를 살펴보면 인간과 음식의 결합과 뒤섞임이 내러티브와 플롯의 구성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초기 4·3 다큐멘터리에서는 제사 음식을 찍은 장면 이후에 통곡하며 증언하는 희생자가 나온다. <지슬> 역시 서사 전체가 영령을 위한 제례이자 ‘눈물과 피로 쓴 위령제’⁶⁾이기에 영화가 차려놓은 제사상에 음식이 놓이는 것이 당연한 조건이 된다.

<지슬>의 음식은 의례를 구성하는 부속물에서 나아가 서사를 이끄는 행위자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음식이 인간과 결합해 특정 행위를 할 때 서사는 예정된 비극적 결말을 향해 전환되고 진전한다. <지슬>이 전하고자 하는 4·3의 원초적 비극은 인간만의 행위로는 결코 만들어지지도, 확장되지 않는다. 영화가 시도하는 의례도 엄수될 수 없다. 인간과 대칭적

주

5) 라투르는 행위자에 대해 “행위자-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라고 규정했다. 인간을 포함해 동·식물, 물질, 기계, 컴퓨터, 화폐, 문자, 정신적 개념들(기억·관념)을 포함한다. Cerulo, Karen A.. “Nonhumans in Social Interac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2009, 543쪽; 김홍중, 「21세기 사회이론의 필수통과지점: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 이론」, 『사회와 이론』 43, 2022, 27쪽.

6) 김영진, <신 전영객집 응시하라, 패배하지 마라>, <씨네21>, https://cine21.com/news/view?mag_id=71554, 2025/6/20.

위치에서 끊임없이 연결되는 또 다른 행위자, 음식이 있어야 가능한 소명이다. 이 글에서는 4·3의 원초적 집단 기억을 서사로 재현한 <지슬>에 나타난 대표 음식, ‘감자와 고추’의 행위를 ANT의 관점으로 재서술한다. 인간과 연결된 감자와 고추가 어떤 행위를 하며 고유의 서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탐색하며 인간과 동등한 행위자로서 음식의 존재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4.3 서사의 음식-인간 연결망 고찰

1) 인간-비인간의 연결로 번역하는 4·3 서사

라투르는 사회를 네트워크로 보는 ‘연합체의 사회학(sociology of the association)’을 주장하며 사회를 연합체들의 운동 공간으로 새롭게 규정한다.⁷⁾ 라투르는 사회를 계급·계층적 구조로 보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의 선이 서로 얽혀 리좀(rhizome)적으로 확산되는 거대한 연결망으로 봤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바이러스라는 행위자가 인간의 몸에 침투하고 연결되어 사회적 일상과 제도, 담론을 전환적으로 바꾼 것을 확인한 바 있다.

ANT에 따르면 현상의 복잡성을 환원할 수 있는 초월적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⁸⁾ ANT의 주요 강령은 행위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프레임, 이론, 맥락, 형이상학을 만든다.⁹⁾ 이를 4·3에 적용하면 평화·화해·상생 등의 초월적 원리로 4·3의 서사를 환원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 따른다.

주

- 7) Latour, Bruno,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7-9쪽.
- 8) 김홍중, 「그림 형제와 라투르: ANT서사 기계에 대한 몇 가지 성찰」, 『문명과 경계』, 6, 포항공과대학교 융합문명연구원, 2023, 16쪽.
- 9) Latour, Bruno,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47쪽.

ANT는 관행적으로 쓰인 4·3의 지배적 담론을 균열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더 이상 4·3을 형이상학적 원리, 사회 구조적 시선을 동원해 계층적으로 서술해서는 안된다는 요구가 따르게 된다. 비인간으로 시야를 넓혀 4·3 서사가 인간과 비인간이 네트워크하며 생산한 무한한 연결망과 의미, 맥락으로 흘러넘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라투르의 “행위자들은 좋은 사회학자들이자 그만큼 좋은 역사학자들”¹⁰⁾의 주장을 기억해야 한다. 동시에 행위자들이 만든 고유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4·3 서사 재서술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4·3 서사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대표 비인간은 ‘총’일 것이다. 1947년 3월 1일 관덕정 인근에 올린 총성이 4·3 비극의 서막을 올렸다. 우리는 지금껏 발포 사건의 행위자를 응원 경찰, 인간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ANT 관점으로 사유를 확장하면 또 다른 결정적 행위자는 ‘총’이 된다. 경찰이 처음부터 총과 네트워크하지 않았다면 4·3의 서사는 아예 다른 판도로 전개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 든 기마경찰’의 존재는 라투르가 ANT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대표 사례와 유사성을 갖기에 흥미를 유발한다. ANT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한 ‘어셈블리지(agencement)’¹¹⁾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들뢰즈는 어셈블리지의 사례로 중세의 기마병을 거론하는데 기마병은 인간과 말-안장이 결합된 복합적 형태다. 기마병은 말이 없으면 기마병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안장이 있어야 손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창을 들고 적과 싸울 수 있다. 인간은 말-안장과 결합할 때 인간에서 기마병으로 변화하고 살육의 욕망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다. 기마병 역시 ANT에서

주

- 10) Latour, Bruno, *The Pasteurization of France*, trans. by A. Sheridan and J. La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51쪽.
- 11) 서로 다른 요소들이 연결돼 잠정적 영토를 이루며 변화하는 배치물을 말한다. Zourabichvili, François. *Le vocabulaire de Deleuze*. Paris: ellipses, 2004, 6~10쪽; Nail, Thomas, “What is an Assemblage?” *SubStance* 46(1), 2017, 21~37쪽; 김홍중, 2022, 18쪽.

만들어진 사회적 결과물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라투르는 근대에 와서 기마병과 유사한 존재, 미국의 ‘총을 든 사람’을 사례로 든다. 총은 사람에게 소유된 부속물이 아니다. 인간이 총을 쥐었고, 총이 인간에게 쥐어지면서 상황과 존재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만약 총이 수장고에 있었다면 사람에게 발포되지 않겠지만 안장이 있는 말을 탄 경찰에게 쥐어졌기에 새로운 존재성과 서사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3·1절 발포 사건이고 참혹한 4·3 비극이다.

영화
연구
105

반대로 총이 중산간 마을 주민에게 전해졌을 때 주체 및 객체성과 존재성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화 <지슬>에서 동굴로 피신한 만철은 흠친 미제 총 한 대를 들고 주민들을 지키겠다고 공언하지만 뒤늦게 고장난 것을 알고 오히려 더 참혹한 죽음을 목격한다. 이어 다시 토벌대에게서 총을 훔치지만, 총은 주민을 죽이는 결과를 낳으며 총 든 만철은 살인자의 존재성을 얻게 된다.

중세 기마병과 미국의 총 든 사람, 1947년 총 든 기마경찰의 행위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된 결과가 4·3이라고 가정 혹은 상상할 때 4·3의 서사는 아예 다른 관점과 의미로 재서술할 수 있다. <지슬>에서 만철이 총을 훔치고 쏘는 행위는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행동이라기보다 토벌대가 일으킨 소용돌이 행위에 휩쓸려 나타난 우연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라투르에게 행위는 베버가 정의한, 인간이 주관적 신념을 갖고 목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위와 차이가 있다. 베버에게 의미는 오직 인간의 것이기에 비인간의 움직임은 행위를 이루지 못한다.¹²⁾

ANT에서는 비인간도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자가 되기 때문에 특정 서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내러티브에서 특정 역할을 담당한다.¹³⁾ 비인간과 네트워크하는 인간의 행위는 ‘소용돌이’처럼 일어난다. 행위의 능

주 ■■■■

12) 김홍중, 2022, 27쪽.

13) Haraway, Donna. “The Promises of Monsters.” *The Haraway Read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4, 115쪽; 블록, 아네르스·엔센, 토르벤 엘고르, 황창진 역,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사월의 책, 2017, 100쪽.

동성은 조용한 상태에서 형이상학적 신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들은 자신들과 무관한 곳에서 느닷없이 밀려와 자신을 삼키고 흘러가는 행위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행위한다. ANT에서 행위는 ‘행위-소용돌이’이며, 소용돌이 행위에서는 인간-비인간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¹⁴⁾

행위자인 인간과 비인간이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이뤄진다. ANT가 ‘번역의 사회학’¹⁵⁾이라고 불릴 만큼 번역은 ANT를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 번역은 “행위자-네트워크들 간의 연결로 강력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데 필요한 절차이자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연합이 행해지는 과정”을 말한다.¹⁶⁾ 번역은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다. 번역이 성공하면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서로 다른 인간과 비인간이 모여 생성한 연결망이 하나의 행위자처럼 보일 때 번역은 성공 단계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소수의 행위자는 네트워크에 동원된 다수의 행위자를 대변하는 권리를 갖게 되며 이전보다 더 큰 권력을 갖는다.¹⁷⁾

번역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과정을 일컫지만,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무언가를 옮기는 ‘기하학적 전달’의 뜻도 갖고 있다.¹⁸⁾ 4·3 의례에서 번역에 성공한 대표 사례는 ‘동백꽃 배지’다. 강요배 화백의 그림 <동백꽃 지다> 속 동백의 이미지가 배지로 물화된 뒤 인간과 적극적으로 결합해 연결망을 만들었다. 자연에 존재했던 동백꽃이 공간을 바꿔 강요배의 화폭으로 옮겨지고 그 뒤에 배지로 제작돼 사람들 가슴으로 다시 옮겨지는 기하학적 전달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배지의 번역 과정은 4·3 70주년인 2019년에 본격 이뤄졌다. 당시 제주도가 4·3 전국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4월엔 동백꽃을 달아주세요’를 전개했다. 제주4·3 70주년 제주기념사업위원회가 제작한 동백꽃 배지

주

14) 김홍중, 2023, 35~36쪽.

15) Akrich, Madeleine, Callon, Michel & Latour, Bruno, *Sociologie de la traduction*, Paris: Presse des Mines, 2006.

16) 최병두, 「관계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7, 2017, 25쪽.

17) 홍성욱(편역),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인간, 사물, 동맹』, 아음, 2010, 15~35쪽.

18) 라투르, 브뤼노, 황의숙 역, 『젊은 과학의 전선』, 아카넷, 2016, 235쪽.

를 유명 연예인과 인사들이 착용해 인터뷰를 하는 영상들이 꾸준히 제작, 공유되면서 배지 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규모도 커졌다.¹⁹⁾ 이제 동백꽃 배지를 부착한 인간은 부정할 수 없는 질서가 됐다. 이질적이던 배지와 인간 간의 네트워크 번역이 성공을 거둬 하나의 행위자로 결절되고 블랙박스(black-box)²⁰⁾로 굳어진 것이다.

4·3 의례 공간에서 동백꽃 배지는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을 갖게 됐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사례가 2020년에 있던 이른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동백꽃 배지 논란’이다. 원 지사는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행사장을 방문한 관계자들에게 배지를 떼자고 제안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4·3 유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과를 요구했고 이석문 교육감은 실제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다.²¹⁾

2) 4·3 영화의 대표 행위자, 음식

4·3 의례에서 권력을 갖는 또 다른 대표 비인간이 ‘음식’이다. “4·3 의례와 같은 사회 의례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징적 힘을 일깨워 준다.”²²⁾는 문화 사회학적, 기호학적 맥락을 거론하지 않아도 유족들과 시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불문율처럼 받아들인다. 4·3 평화공원을 갈 때마다 비석과 위패 앞에 술과 돼지고기, 국, 나물, 과일, 빵, 떡 등을 올리고 예를 다하는 이들을 보는 건 일상적인 풍경이다. 이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음식이 삭제된 의례는 애초부터 시작

주

- 19) 허호준, <정우성·곽도원 “4월엔 동백꽃을 달아주세요”>,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32526.html, 2025/6/2.
- 20) ANT에서는 이종적인 네트워크가 하나의 행위자나 대상으로 축약되는 것을 결절(punctualization)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블랙박스(black-box)라고 부른다. 홍성욱, 2010, 23쪽.
- 21) 홍창빈, <광복절 ‘4·3배지 배제’ 논란 확산… “원희룡 지사 사과하라”>,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094>, 2025/6/2.
- 22) 현해경, 「의례, 공연, 그리고 연대의 문제-50주년 기념 4·3 도민 해원상생국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18, 2000, 94쪽.

되기도, 완성을 전망하기도 어렵다.

이 역시 음식과 인간의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번역된 뒤 블랙박스로 굳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블랙박스과 4·3 의례를 올리는 제단은 같은 속성·숙명을 공유한다고 사유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검은색과 사각틀의 공통점을 갖는다. 음식이 놓인 제단 자체가 4·3의 서사와 기억, 추모의 예가 집약된 블랙박스로 기능한다. 그렇기에 제단에서 음식을 함부로 뺄 수도, 생략할 수도 없다. 음식이 빠진 의례는 완성될 수 없기에 음식은 의례 공간에서 권력을 갖고 인간을 지배한다.

같은 음식이어도 어느 공간에서, 어떤 인간들과 어떤 상황으로 네트워크하고 번역되는지에 따라 권력의 크기와 위치, 존재 의미가 달라진다. 과일과 돼지고기는 의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음식이다. 하지만 <지슬>에서 과일과 돼지는 주민들과 연결되지 못한다. 영화 첫 시퀀스, 카메라는 롱테이크로 구름 낀 하늘에서 시작해 제주 섬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널브러진 제기와 살림살이, 팔이 축 늘어진 시체를 비춘다. 군인들은 시체 옆에서 태연하게 과일을 깎으며 먹고 있다. 돼지 역시 군인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착취하고 삶아질 뿐 주민들과 연결되지 못한다. 과일과 돼지는 토벌대의 무리에 강탈되는 순간 살육의 잔인함을 강화하는 은유적 객체가 된다.

반면 주민들과 연결된 감자는 생존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기에 더 소중하고 귀하다. 삶은 감자는 주민들이 손에 쥐어질 때 의례를 완성하는 주체가 된다. 영화에 나오는 ‘마른 고추’ 역시 평시에서는 그냥 먹을 수 없어 존재감이 희미하다. 그러나 토벌대의 습격 앞에서는 주민의 손에 의해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화학 무기로 돌변한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존재의 역동성이 달라진다.

인간과 음식의 연결 여부에 따라 다르게 구성·체험되는 비극의 서사는 <지슬>만의 전락이 아니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제작된 4·3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취했던 공통적인 서사 재현 방식이다. 다큐멘터리들에서 음식들은 제사와 추모제 등 의례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지만 정작 음식을 먹어야 할 명령과 연결에는 실패한다. 카메라가 음식을 배경으로 통곡하

는 유족들을 비출 때, 음식은 트라우마를 재연하고 유족들이 느끼는 억울함, 명령들에게 음식을 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을 증폭하는 핵심 행위자로 은유된다.

음식이 살아있는 인간과 연결되지 못할 때 트라우마와 비극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로 격상된다. 다큐멘터리 <무명천 할머니>(4·3다큐제작단, 1999)는 4·3 당시 총상으로 턱을 잃은 채 평생 살아온 진아영 할머니의 삶을 기록했다. 제작진은 할머니를 위해 수제비를 만드는데 카메라는 펄펄 끓는 수제비를 클로즈업하며 존재감을 강화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작진의 권유를 극구 사양하며 수제비를 먹지 않는다. 인간-음식 연결 실패 장면은 턱이 없는 할머니의 맨얼굴을 클로즈업한 장면과 연결되면서 트라우마와 비극을 증폭한다. 무명천 할머니는 국가 폭력에 의해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영위할 수 없는 생존 희생자들의 참혹한 삶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존재한다. 나아가 할머니는 4·3 진상규명 운동을 확장시키는 상징적 자원이 된다.

이와 반대로 생존 희생자와 음식이 연결되는 장면은 4·3 진상규명 운동의 성과를 납득하게 하는 인식 틀로 작용한다. 다큐멘터리 <수프와 이데올로기>(양영희, 2022)에서는 양영희와 어머니 강정희 여사, 양영희의 남편이 평화롭게 닭백숙을 요리해 먹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는 4·3 당시 목숨 걸고 밀항해 고향 제주를 탈출한 강정희 여사가 2018년,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위해 고향을 방문하는 장면과 연결된다. 닭백숙의 행위가 전하는 평화로움은 진상규명 운동의 성취로 만들어진 일상의 평화, 트라우마 치유의 희망을 체험하게 한다.

3) <지슬>이라는 블랙박스, 재번역을 요청하는 음식의 행위

<지슬>은 번역에 번역을 거쳐 지금은 ‘대표 4·3영화’라는 블랙박스로 굳어졌다. 특히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 등의 이력까지 번역 과정에 더해지면서 <지슬>은 매체적·미학적 성취를 넘어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끈 정치적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강 작가의 사례로 확인 하듯이 <지슬>에서 굴절되는 강고한 권위, 질서 역시 관습화된 4·3 담론으로 거듭 번역된 결과다. 그러나 <지슬>의 블랙박스화는 제주 지역에서 4·3영화가 활발히 제작되지 못하는 역설로 작용하고 있다. <지슬> 이후 당장 떠올릴 수 있는 4·3영화는 <비념>(임흥순, 2013)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임흥순, 2019), <수프와 이데올로기>, <포수>(양지훈, 2022), <돌들이 말할 때까지>(김경만, 2024), <목소리들>(지혜원, 2025) 정도다.

영화들은 제주 바깥의 시선으로 제주 안의 4·3을 들여다보고 사유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지슬>이 성취한 온전한 ‘로컬 영화’의 의미로 규정하기가 힘들다. <지슬>이 짝 띄운 4·3 극영화의 가능성이 확장되지 못하고 다시 다큐멘터리로 한정되어 버린 현실도 아쉽다. 특히 <지슬>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의 경계, 미술과 영화의 경계,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지우면서 장르와 미디어의 영역을 확장한 시도가 계승, 발전되지 않는 것은 로컬 영화, 4·3 영화의 미래를 근심하게 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지슬> 이후를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슬>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관건은 딱딱하게 굳은 블랙박스를 해체해 재번역할 수 있는 나다. <지슬>을 분석한 이전 연구들을 고찰할 때 두 가지 중요한 한계가 확인된다. 첫째 인간의 행위만을 갖고 사유했다는 점, 둘째 영화를 본질·초월적 가치로 무리하게 환원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흑백 화면 위에서 펼쳐지는 서사의 전개 방식에 대해 무장 군인을 마주한 주민들의 두려움과 공포, 죽은 이를 향한 애도를 강조했다²³⁾는 공감이 되지만 인간들과 무수히 연결된 비인간까지의 사유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취라 할 수 있다. <지슬>을 국가가 억압·은폐한 기억에 저항하는 대안적 집단 기억, 문화적 기억으로 환원하는 시도²⁴⁾ 제주 창

주

23) 강경래, 「포스트-미디어 환경에서 국가 트라우마 재현 양식 변화에 대한 연구: 제주4·3을 재현한 작품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89, 2023, 6~7쪽.

24) 황인성, 「‘기억’으로서의 영화 <지슬>과 <지슬>이 구성하는 ‘기억’의 의미에 대하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3, 2014, 359~364쪽.

조 여신 설화를 동원하여 모성과 평화 등의 초월적 가치로 환원하는 시도²⁵⁾ 등은 두 번째 한계에 해당한다.

<지슬> 재번역을 위한 전제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특히 음식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이다. 그런 뒤에 인간과 음식이 연결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서사를 재서술해야 한다. 만약 <지슬>을 인간만의 서사로 서술한다면 음식은 인간의 행위를 구성하는 미장센으로만 기능할 것이다. <지슬>은 제목에서부터 종속의 구조를 바꿔 음식을 인간과 동등한 행위자로 위치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영화는 포스트-미디어적인 감각을 활용해 사물이나 풍경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도록 섬세하게 묘사됐다는 평가를 받는데,²⁶⁾ 이런 연출 방식은 음식에게도 적용된다. 정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잿빛 화면에 비춰지는 과일과 감자, 돼지, 고추는 서사의 전환점마다 클로즈업되며 인간과 결합해 의미심장한 행위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과일은 군인이 든 칼에 잘리고 있고 돼지는 군인들이 피운 불 위에서 삶아지고 있다. 감자는 불에 탄 채 주민에게 발견됐고 마른 고추 또한 불 타며 매운 연기를 마구 피워낸다.

음식의 행위를 중심으로 <지슬>의 서사를 재서술, 재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음식들의 행위가 4·3 트라우마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인간처럼 음식들 역시 4·3의 깊은 상흔을 남긴 대표 폭력 수단, 칼과 불에 의해 존재가 손상됐고 행위의 결과가 바뀌었다. <지슬>의 서사는 인간-음식-칼-불-총의 연결망이 연쇄적인 소용돌이를 만들며 팽창하다가 내부에서 모순과 비극이 폭발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4·3이 인간만이 아니라 음식으로 대표되는 비인간들에게도 슬픈 역사였음을 감각하게 된다. 인간-음식의 연결로 <지슬>의 서사를 재서술, 재번역할 때, 영화는 감자의 서사, 돼지의 서사, 고추의 서사 등으로 확장해 사유할 수 있다. 행위자와 서사, 사유의 확장은 포스트 <지슬>의 관점에서 4·3영화의 소재와 주제, 미학적 도전과 실험의 영역

주 ■■■■

25) 장우진, 「설화, 땅, 그리고 모성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현대영화연구』 17, 2014, 122~130쪽.

26) 강경래, 2023, 13쪽.

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인식·실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4·3 시기를 배경으로 소위 감자의 영화, 고추의 영화, 돼지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음식의 행위를 중심으로 <지술>의 서사를 재번역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4가지 대표 음식 - 과일, 돼지, 감자, 고추 - 중에서 주민들과 연결에 성공한 감자와 고추의 서사를 재서술한다. 영화에서 이들 음식은 주민과 연결 여부에 따라 행위의 경로와 성격, 의도, 그로부터 확인되는 존재성이 확연히 달라진다. 감자는 주민들과 연결될 때 생존을 유지하는 행위를 하지만, 실패할 때는 죽음의 경로로 안내하는 행위를 한다. 고추는 동굴에서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무기로 행위한다. 또한 두 개의 음식은 죽은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는 의례의 대표 상징—제사 음식과 향의 연기—으로 은유된다. 감자와 고추를 서사를 이끄는 행위자로서, 명령을 위한 의례를 엄수하는 행위자로서 주목하고 행위를 재서술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하다.

영화
연구
105

3. 음식의 행위로 재서술하는 <지술>의 서사

1) 감자의 서사

삼촌네 그 옴팡진 돌짜발에는 끝까지 찾아가지 않은 시체가 둘 있었는데 큰 아버지의 손을 빌려 치운 다음에야 고구마를 갈았다. 그해 고구마 농사는 풍작이었다. 송장 거름을 먹은 고구마는 목침 덩어리만큼 큼직큼직했다.²⁷⁾

현기영 소설 『순이삼촌』 곳곳에서 음식과 인간이 만든 연결망을 만날 수 있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모순적 서사와 비극의 정서, 끈질긴 삶의 의지 등이 음식으로 구현된다. 고구마는 인간 시체에서 나온 거름을

주 ■■■■■

27) 현기영, 『순이 삼촌』, 창비, 1978, 93쪽.

먹고 큼직하게 자랐다. 북촌마을 학살이 없었다면 고구마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그 고구마가 있었기에 순이삼촌은 질곡의 시간을 버티고 연명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기억을 채록하기 위해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두 행위자, 순이삼촌과 고구마다.

상상과 사유를 확장하면 시대와 장르가 다른 <지슬>과 『순이삼촌』이 사실 ‘음식’으로 연결된 동일한 맥락을 가진 예술 작품이 아닌가 하는 가정에 이르게 된다. 오명 감독이 4·3 영화를 만든 동기에 소설의 ‘고구마’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이 고구마의 서사와 유사한 ‘지슬(감자)’이 아닐까.

고구마와 감자는 어원에서부터 같은 기억과 이야기를 공유한다. 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자 어휘 ‘감저(甘藷)’가 고구마의 뜻으로 쓰였다. 그러다 일본어 ‘고그마’가 들어와 고구마의 의미로 대체됐고 감자는 ‘감저’로 굳어졌다. 제주에서는 감자가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구마를 ‘감저’라 했다. 이후 용어 구분을 위해 감자를 새 어휘인 ‘지실’ 또는 ‘지슬’이라 했다.²⁸⁾

두 작물은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목숨을 유지하게 한 구황 작물의 공통점이 있다. 제주 중산간 마을 개간·정착을 가능하게 한 재배 환경, 지역 경제 육성의 기반이 된 대표 1차 산업 등의 이야기도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고구마와 감자는 4·3을 국내외에 알리고 진상 규명 운동의 참여를 확산한 예술 작품, 『순이삼촌』과 <지슬>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처럼 행위자로서 음식의 존재는 흥미롭고 행위의 반경도 예측이 힘들다.

『순이삼촌』의 고구마는 제주도 동쪽 지역(조천읍 북촌리)에서 서사를 만들었고, <지슬>의 감자는 제주도 서쪽 지역에서 서사를 만들었다. <지슬>의 배경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지역, 그 중에서 무등이왓은 식수원의 어려움으로 설촌하기가 힘들었으나 화전농을 하기에는 적합했다고 전해진다. 이 지역에서는 감자를 비롯해 조, 메밀, 보리, 콩 등을 심었다.²⁹⁾ 인간과 감자의 끊임없는 네트워크는 중산간 마을의 사회적 연결망,

주 ■ ■ ■ ■ ■

28) 제주학연구센터, 『지슬 7란 감자, 감저 7란 고구마』, 한그루, 2022, 189쪽.

거주 규모와 경제력을 확장했다.

이는 수탈과 살육을 촉진하는 역설로 작용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수월한 수탈을 위해 중문에서 한림까지, 대정에서 제주시까지 우마차 정도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놓여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가 됐다.³⁰⁾ 수탈의 가속화는 4·3에 와서 대규모 학살 피해로 전면화됐다. 1948년 11월 동광리에서 벌어진 무차별한 학살과 방화 등의 역사적 기억이 <지슬>에서는 인간-감자의 연결망을 토대로 한 문화 기억으로 재구성됐다.

<지슬>에서 감자는 크게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 다른 공간, 상황, 사람들과 연결돼 각기 다른 서사와 정서, 의미로 갈라진다. 첫 번째 감자 집단은 토벌을 피해 동굴로 피신한 주민들과 연결됐다. 이른바 ‘피신한 감자들’이다. 동굴 속에서 만들어진 주민-감자의 연결망은 점차 확산돼 동굴 밖 요소들과 연결·순환된다. 주민들은 감자를 먹으며 허기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에 두고 온 사람과 돼지 등 재산에 대한 걱정을 환기한다. 그럼에도 2~3일 후에는 사태가 끝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생기를 안고 감자를 먹는다.

감자들을 삶아 피신시킨 주민은 순덕 어머니다. 감자는 동굴 속 주민들에게 동등하게 나뉜다. 덕분에 불안한 동굴의 공동체는 평화로운 식구(食口)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는 반드시 피신시켜야 할 인간, 딸 ‘순덕’을 두고 왔다. 가장 먼저 감자를 먹여야 할 순덕은 감자와 연결에 실패해 목숨이 위태롭다. 동굴에서 감자와 인간의 권력적 위상이 바뀐다. 주민들은 감자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먹지만 순덕의 행방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용필은 “만철이가 내일 찾아올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두 번째 감자는 군인의 손에 쥐어졌다. 이른바 ‘강탈된 감자’다. 어린 군인은 눈 쌓인 들판에서 순덕을 만나 총구를 겨누지만 죽이지 못한다. 그 사이 순덕은 도망치지만 금방 잡혀 창고에 갇힌 채 성적으로 끔찍하게

주 ■■■■

29) 김지수,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제주도연구』 18, 제주학회, 2000, 120쪽.

30) 김지수, 앞의 책.

유린당한다. 총을 쏘지 못한 군인들은 눈발에서 기합을 당하는 데,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감자를 훔치기로 한다. 유린이 이어지던 새벽, 감자를 훔친 군인이 순덕이 있는 창고에 가지만 순덕이 쏜 총에 죽게 되고 순덕도 총을 맞아 숨진다. 카메라는 죽은 군인 손에 있던 삶은 감자를 클로즈업한다.

주민들이 재배한 감자는 군인들의 손과 손으로 연결됐지만 강탈의 결과였기에 처음부터 행위의 도덕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감자의 여정은 폭력이 최고 수위로 가해진 창고에서 멈췄다. 감자는 이번에도 순덕과 연결되지 못했다. 감자의 행위는 죽음의 서사를 만들었다. 창고에 남은 감자는 순덕과 군인의 죽음을 기억하는 핵심 주체가 됐다.

세 번째는 ‘음복(飮福)의 감자’다. 소개령을 접한 무동은 어머니에게 비난길을 재촉하지만 거부당한다. 어머니는 어린 자식과 임신한 아내를 책임지기도 부담되는데 다리 아픈 자신까지 짊어질 수 있겠냐며 타박한다. 일제 강점기 때도 별일 없었다며 걱정 말고 빨리 가라고 말하고는 아들에게 감자를 갖고 갈 것을 권한다. 이에 분노한 무동은 “지금 감자가 문제냐”며 자리를 벗어나고 쟁반에 있던 감자는 마룻바닥에 굴러 떨어진다.

순덕 어머니 감자와 달리 무동 어머니 감자는 피신에 실패했다. 그때부터 감자와 무동 어머니는 죽음의 위기를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한다. 감자와 무동 어머니의 강력한 연결은 하나의 행위자로 번역된다. 4·3 당시 피신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대표 집단인 노인으로 상징된다. 그렇기에 영화에서 무동 어머니가 토벌대에게 무참히 살해되고 불에 탄 때 감자도 불타 형체가 손실된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소용돌이 행위는 동굴에 있던 무동을 집으로 오게 하는 또 다른 소용돌이 행위가 됐다. 서럽게 울던 무동은 불에 탄 어머니의 옷 안에 있는 감자를 발견하고 동굴로 가져간다. 『순이삼촌』의 고구마처럼 <지슬>의 감자도 시체, 엄밀히 말하면 영령과 일체화되면서 새로운 존재로 변모한다.

감자는 음복을 위한 제사 음식이 돼 동굴로 옮겨지고 주민들에게 분배된다. 주민들은 감자가 따뜻하고 달다며 맛있게 먹는다. 하지만 영령으로

행위하는 감자가 살아있는 주민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서사와 연결망이 만들어질 것을 예감한다. 불탄 감자가 주민의 생사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감. 그 예감은 비극의 현실이 돼 동굴을 ‘제사상’이라는 블랙박스로 변모시킨다.

2) 고추의 서사

고추는 한국 사람들과 깊게 연결된 대표 작물이다. 식탁에 가족들이 앉아 김치찌개와 김치 등을 평화롭게 먹는 행위는 오래전 블랙박스로 확고히 굳어졌다. 고추는 조선시대인 1614년 무렵 한반도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에서도 이 시기에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 초에서 1980년대까지 대정읍 인성, 안성, 보성 등에 주산지가 형성됐다.³¹⁾ 중산간 지역에서 고추를 재배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할 때, <지슬>에서 주민들이 고추를 챙기고 동굴로 피신한 장면은 설득력이 있다.

블랙박스는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상황에서는 의심받지 않지만 내부의 행위자가 이탈하거나 이탈하려고 할 때 해체를 요구받는다.³²⁾ 식탁에서 김치와 찌개, 볶음의 재료로 안정적으로 연결됐던 고추가 식탁을 이탈해 동굴로 이동할 때 존재의 안정은 불안으로 바뀌고, 당위성이 흔들리며 역할이 달라진다. 이러한 징후를 동굴 속 주민들의 대화 시퀀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굴로 피신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냐 물어본다. 순덕 어머니가 말린 고추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눈길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먹지 못할 것을 갖고 온 순덕 어머니에게 언짢은 표정으로 핀잔을 준다. 이어 순덕 어머니는 삶은 감자를 꺼내고 그때부터 고추의 존재, 서사는 관심 밖으로 사라진다.

식탁에서는 필수 행위자로 사랑받는 고추가 피난길에서는 불필요한 짐

주

31) 이성돈, <제주 과채류 재배의 역사>, 《헤드라인제주》,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685>, 2025/6/5.

32) 박준홍·정희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제주 예멘 난민의 관계성의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 한국도시지리학회, 2019, 57쪽.

처럼 취급된다. 그도 그런 것이 고추는 본연 매운맛을 살리는 식재료·조리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고추는 행위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 기술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구조가 틀어지는 순간 서사와 존재적 의미, 프레임이 달라진다. 전혀 다른 재료, 공간, 인간과 연결되는 순간 고추는 인간을 살리는 음식이 아니라 죽이는 무기로 바뀌어 비극의 서사를 쓰기 시작한다.

이를 <지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결말에서 말린 고추가 화학 무기로 쓰이는 장면이다. 동굴을 포위해 진입을 시도하는 토벌대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말린 매운 고추를 불태워 연기를 피운다. 카메라는 불타며 연기를 피우는 고추를 오랜 시간 비추며 마치 연기가 고추가 내뿜는 숨결 혹은 분노로 느껴지도록 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매운 연기를 들이마시며 고통스러워하는 주민과 군인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이념과 진영, 피·가해자의 경계를 초월하며 동굴 속을 채우는 매운 연기의 행위는 토벌대의 작전을 잠시 저지하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안긴다. 주민들은 연신 연기를 입구 쪽으로 보내지만 연기는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행위를 펼치며 동굴 안을 헤집고 주민들의 눈과 귀, 입, 피부 속에도 침투해 점차 생명을 갉아 먹는다.

고추를 배제하고 주민들의 행위만 부각하면 동굴 속 장면은 숭고한 ‘저항’의 의미가 된다. 하지만 고추와 주민을 결합하면 재래 화학 무기를 동원한 전투로 바뀐다. 그래서 동굴 전투 장면은 ‘무기의 역사’와 연계해 사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추의 존재는 음식 이전에 ‘무기’였다. 한반도에 들어올 때부터 고추는 무기로 인식됐다. 이수광이 1963년 펴낸 『지봉유설』에는 고추가 소주에 타서 마시는 독(毒)으로 소개돼 있다. 책에는 “남만초(고추)는 센 독이 있는데 처음에 왜국에서 들어왔다… 때로 이것을 심고는 술집에서 그 맹렬한 맛을 이용하여 간혹 소주에 타서 팔고 있는데 이를 마신 자는 대부분 죽었다고 한다.”고 나와 있다.³³⁾

주

33) 주영하, 「고추의 상징화 과정에 대한 일고(一考)」, 『역사민속학』 1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338~342쪽.

고추를 무기로 본다면 4·3은 고추를 동원한 ‘내전의 서사’로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4·3 당시 고추를 무기화한 건 주민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벌대 역시 주민을 고문하기 위해 고추를 무기로 사용한 기록이 『4·3 진상보고서』 등에 나와 있다.³⁴⁾ 고추의 서사는 4·3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고추를 무기로 찢던 사회적 연결망을 인간 스스로 거부하고 끊을 수 있는가. 고추는 음식으로만 쓰여야 식탁이 평화롭다. 식탁에서부터 평화로운 미시적 행위들이 모이고 중첩될 때 거시적인 평화의 서사가 쓰이지 않을까.

4. 맺으며

영화 <지슬>의 서사는 인간과 음식의 긴밀한 연결망으로 구성돼 있다. 영화에서 주민들과 연결된 감자와 고추는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칭적 4·3 서사를 만든 주체로 활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석되고 기술된 4·3 서사는 ‘비대칭적’이었다. 인간의 활약과 헌신만이 부각됐다.

인간에 치중된 비대칭적 4·3 서사는 그 자체로 담론과 연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인간과 대칭적인 위치에서 관계하는 비인간의 실재를 규명하지 않고는 포괄적 서사를 재서술할 수 없다. 비인간의 배제가 계속 되면 4·3은 갈수록 환원주의에 깊게 빠져 나중에는 헤어 나오기 어려울 지경이 될 것이다.

이를 특정 담론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일종의 기만에 불과하다. 비인간이 배제된 채 만들어진 4·3 담론은 인간-비인간이 만든 혼종의 연결망과 서사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환원주의에

주

34) 진상보고서에는 강서수의 피해 사례가 나와 있다. “(북촌리 굴에 숨어 있다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초가집 하나 지은 옆에 물이 있으니까, 물을 떠다가, 고춧가루를 주전자에 타고, 우리를 수갑 채워서 거꾸로 매달아서 고추 물을 코로 넣고, 우리를 막 밟고 해서 한 번 죽여 놓았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84쪽.

빠지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처방이 너무나 간단해진다. 서사가 이해되지 않기에 재서술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대신 기존 담론의 틀 안에 모든 현상과 의미, 맥락을 몽뚱그려 구긴 채 억지로 집어넣어 문제가 해결됐다고 둘러댄다.

이는 <지슬>로 대표되는 4·3영화를 사유하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간과 결합한 음식을 배제한 채 인간만의 행위만을 갖고 분석하거나, 서사를 본질·초월적 가치로 무리하게 환원하려는 경향들이 있었다. 이는 로컬 영화로서 다양한 4·3영화의 출현을 위축시키는 역설로 작용했다. 동시에 인간과 음식이 자유롭게 결합, 증식하며 풍성한 서사를 만드는 <지슬>의 성취를 반감하는 한계가 됐다.

<지슬>은 제목에서부터 인간과 음식을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는 영화이며, 인간처럼 칼과 불에 의해 상처받은 음식들의 존재적 변화와 행위의 경로, 결과를 기록하는 영화다. <지슬>을 통해 인간 역시도 이종적 질료간의 패턴화된 네트워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한다.³⁵⁾ 음식을 배제하면 <지슬>은 완성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사유의 관점을 확장하여 음식의 행위를 중심으로 <지슬>의 서사를 재서술, 재번역해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논문에서는 영화에서 주민과 연결된 감자와 고추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사를 재서술했다. 이런 시도가 확장되어 감자와 고추, 돼지 등의 행위를 서사로 재구성한 4·3영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행위자를 음식 등의 비인간으로 확장하면 4·3 연구와 진상 규명 운동 공간에도 비인간이 참여하게 돼 그 영역과 가능성, 연대의 범위가 넓어진다. 라투르가 주장하는 ‘사물들로 확장된 민주주의’, ‘사물들의 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³⁶⁾ 영화 속 음식으로 빚대면 감자와 고추가 주권을 행사하고 인간들과 연대하면서 4·3 운동 및 서사 재서술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4·3 연구 및 운동 진영이 마주하는 현실 문제, 갈수록

주

35) 로, 존, 홍성욱 편역, 『ANT에 대한 노트: 질서 찾기, 전략, 이질성에 대하여』, 『인간, 사물, 동맹』, 이음, 2010, 46쪽.

36) 라투르, 브뤼노, 홍철기 역,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350~351쪽.

형이상학적 원리로 재생산되는 평화·인권·화해·상생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음식과 동·식물, 사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간과 네트워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공론장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음식의 대변인’이 될 수 있을까? 음식을 살아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4·3 서사를 해석하거나 재서술할 때 인간과 음식을 구분해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다. 인간과 음식들의 네트워크를 이해해야 4·3의 서사를 포괄적으로,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4·3 진상규명 과정에서 인간이 아닌 음식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4·3 의례의 공식화, DNA 채취를 통한 유해 신원 확인, 고령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의 직권 재심 참여 등의 역사적 과정마다 음식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성취를 만드는 주체로 참여했다.

4·3 서사 재서술 과정은 음식을 포함한 비인간들의 행위, 인간과의 네트워크를 인간의 언어, 공동체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이는 낯설고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익숙한 경험이다. 4·3을 알고 아픔을 공감하는 시민들 모두가 사물인 ‘동백꽃 배지’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백꽃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는지를 공동체 언어로 번역해 인간과 배지를 하나의 행위자로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이제부터 ‘음식’의 대변인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 시작을 4·3 영화 서사의 재서술, 재번역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지슬>의 서사는 인간-음식 네트워크의 연쇄적 연결망이 축적·중첩된 결과물이다. <지슬>을 ‘사물들의 의회’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지슬>에서 동굴로 피신해 감자를 먹던 주민들은 우스갯소리로 석범의 돼지와 인간을 접 붙이지는 말까지 한다. 돼지의 식사를 걱정하던 석범은 마을로 내려갔다가 붙잡혀 돌에 맞아 죽는다. 광폭의 시간 한 가운데 파리를 튼 희·비극은 인간과 감자, 돼지, 돌의 접붙임(네트워크)로 완성됐다. 영화는 이미지 번역을 통해 음식과 사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영화는 묻는다. 목소리들을 들을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참고문헌

단행본

- 라투르, 브뤼노, 황의숙 역, 『젊은 과학의 전선』. 아카넷, 2016.
- _____, 홍철기 역,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 로, 존, 홍성욱 편역, 『ANT에 대한 노트: 질서 찾기, 전략, 이질성에 대하여』, 『인간, 사물, 동맹』, 이음, 2010.
- 블록, 아네르스·엔센, 토르벤 엘고르, 황창진 역,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사월의 책, 2017.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 제주학연구센터, 『지슬 7란 감자, 감저 7란 고구마』, 한그루, 2022.
- 현기영, 『순이 삼촌』, 창비, 1978.
- 홍성욱(편역),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인간, 사물, 동맹』, 이음, 2010.
- Akrich, Madeleine, Callon, Michel & Latour, Bruno, *Sociologie de la traduction*, Paris: Presse des Mines, 2006.
- Latour, Bruno, *The Pasteurization of France*, trans. by A. Sheridan and J. La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Latour, Bruno,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Zourabichvili, Francois, *Le vocabulaire de Deleuze*. Paris: ellipses, 2004.

논문

- 강경래, 「포스트-미디어 환경에서 국가 트라우마 재현 양식 변화에 대한 연구: 제주4·3을 재현한 작품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89, 2023.
- 고성만, 「제주 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4·3과 역사』, 5, 2005.
- 김지수,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제주도연구』 18, 제주학회, 2000.
- 김홍중, 「그림 형제와 라투르 : ANT서사 기계에 대한 몇 가지 성찰」, 『문명과 경제』 6, 포항공과대학교 융합문명연구원, 2023.
- _____, 「21세기 사회이론의 필수통과지점: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 이론」, 『사회와 이론』 43, 2022.
- 문관규, 「음식 공유 장면에 재현된 동아시아 영화의 에피스테메: 홍상수와 지아장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5,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3.
- 박준홍·정희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제주 예멘 난민의 관계성의 이해」,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 한국도시지리학회, 2019.
- 장우진, 「설화, 땅, 그리고 모성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 『현대영화연구』 17, 2014.
- 주영하, 「고추의 상징화 과정에 대한 일고(一考)」, 『역사민속학』 1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 최병두, 「관계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7, 2017.
- 황인성, 「기억」으로서의 영화 <지슬>과 <지슬>이 구성하는 ‘기억’의 의미에 대하여, 『한국소통학보』 23, 한국소통학회, 2014.
- 현혜경, 「의례, 공연, 그리고 연대의 문제-50주년 기념 4·3 도민 해원상생곳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18, 2000.
- Cerulo, Karen A., “Nonhumans in Social Interac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2009.
- Haraway, Donna. “The Promises of Monsters.” The Haraway Read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4.
- Nail, Thomas., “What is an Assemblage?” SubStance 46(1), 2017.

기타자료

- 김영진, <[신 전영객진] 응시하라, 패배하지 마라>, <씨네21>, https://cine21.com/news/view?mag_id=71554, 2025/6/20.
- 박성우, <“소년은 작별하지 않는다”...세계문화 중심 파고든 ‘제주 리얼리즘’>, <제주 주의소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6954>, 2025/6/7.
- 이성돈, <제주 과채류 재배의 역사>, <헤드라인제주>,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685>, 2025/6/5.
- 허호준, <정우성·곽도원 “4월엔 동백꽃을 달아주세요”>,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32526.html, 2025/6/2.
- 홍창빈, <광복절 ‘4·3배지 배제’ 논란 확산... “원희룡 지사 사과하라”>,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094>, 2025/6/2.
- Han Kang, <Nobel Prize lecture in Korean-빛과 삶>, <THE NOBEL FOUNDATION 2024>, <https://www.nobelprize.org/prizes/literature/2024/han/225027-nobel-lecture-korean>, 2025/6/1.

Abstract

The Study of ‘food’ for The Jeju 4 · 3 Narrative Actor: Focusing on the movie <Jiseul>

Lee JeongWon

Researcher, Center for Jeju Studies

영화
연구
105

This article aims to re-describe the narrative of Jeju 4 · 3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ing the narrative of peace, concepts, and globalization. When examining the original narrative, 4 · 3 is the result of a narrative of hybridity in which humans and non-humans are connected and shared. However, until now, humans have been narrating human narratives while drawing boundaries with non-humans. Because of this, we have encountered limitations in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hybrid narratives. The representative non-human that constitutes the narrative of 4 · 3 is ‘food.’ Food occupies an absolute position in composing the 4 · 3 ritual. The movie <Jiseul> places food in the title, declaring that food is the central actor leading the narrative. When food combines with humans and performs a specific action, the narrative changes and progresses toward a predetermined tragic ending. The representative actors of <Jiseul> are potatoes and peppers. Potatoes transform the entire film into a memorial service through their acts of refuge, robbery, and partaking of sacrificial food and drink. Peppers act as weapons and allow us to see 4 · 3 as a narrative of civil war using conventional weapons. 4 · 3 films are becoming spokespeople who reveal the voices of food and objects through image translation, so continuous research is necessary.

Keywords :

Food, Jeju, Actor-Network Theory, 4 · 3, Jiseul, Potato, Pepper

